

여행

진달래 세상' 여수 영취산

진라도 맛 기행



여수 영취산이 진달래로 물들어 가고 있다. 선홍빛의 고운 꽃망울을 터뜨린 진달래가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영취산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 '남해 주꾸미 마을'



주꾸미와 고추장 맛이 조화를 이룬 주꾸미 볶음은 봄철 영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쫄깃·매콤한 볶음 일품

밥풀처럼 나오는 알 씹는 맛 '그만'

봄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주꾸미 볶음은 대(4~5인분), 중(3~4인분), 소(2인분)로 나뉘며 가격은 각각 4만원, 3만원, 2만원이다.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식사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 찾는 것이 좋다. 문의 062-382-8881.

'남해 주꾸미 마을'은 주꾸미 산산지인 전북 부안산을 취급한다. 손님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살아있는 것과 냉동 2종류를 제공한다. 주인 김상기(50)씨는 "주꾸미 전문점이나 만큼 양질의 재료를 고르기 위해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며 "맛을 알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꾸미 볶음은 주꾸미를 고추장, 미나리, 표고버섯, 양파와 버무린 것으로 문어와 연체동물 고유의 맛을 고스란히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삶은 주꾸미 머리는 볶음과 별도로 식탁에 오른다. 주꾸미 머리에서 밥풀처럼 터져 나오는 고소한 알을 입안에서 씹는 맛은 별미다.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
< ★ 5개 만점 >

찾아가는 길
5·18기념공원
광주 시청
유촌초교
남해 주꾸미마을

연분홍 꽃길따라 그리움의 산행

그대여/ 저 능선과 산자락 굽이마다/ 설레임으로 피어난/ 그리움의 바다를 보아라.../ 그러나 그대는 알리랴/ 또 전설처럼 봄이 오면/ 눈물과 설움은 삭고 사야/ 무량한 그리움으로/ 다시 피어날 것을.

여수 영취산의 진달래는 연변 약산의 진달래와 사뭇 다르다. 약산의 진달래가 가시는 남의 절을걸음 아래서 사뿐히 드러 밝히는 '이별의 꽃' 이라던 영취산의 진달래는 모진 삼동을 기어 이고 피어나는 '만남의 꽃' 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는 꽃이라면 산행 초입에 있는 김중안의 진달래는 눈물과 설움을 사혀 무량한 그리움으로 마냥 기다리는 꽃이다.

앞엔 불타는 진달래·돌아보면 쪽빛 바다

개화 시기 빨라져 4월 초에 절정 뽐낼 듯

으며 여수반도에서 제일 높고 자연마을로 세워져 있다.

주변에는 기암괴석과 수많은 수종들이 울창하며 산 북방 중간지대의 광활한 면적에는 진달래가 자생군락을 이루고 있다. 20년 이상 된 진달래 수만 그루가 산을 뒤덮고 있다. 창녕 화왕산, 마산 무악산과 함께 남도 3대 진달래 명소 이름높은 이 산은 높이가 510m에 지나지 않는다.

3월말부터 피기 시작하는 진달래는 4월하순까지 이어진다. 가장 화려한 빛깔을 자랑할 때는 4월10일부터 일주일 간이지만 올해는 10여

일 빨리 개화해 4월초에 농염함을 한껏 뽐낼 것 같다.

진달래는 산간의 양지에서 자라고 봄에 연분홍색의 꽃이 핀다. 진달래를 두견화, 산적초, 참꽃이라고 부르며 '부끄럼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별명처럼 눈발이 휘날리는 이른 봄에 수줍은 듯 꽃눈을 맴다가 남풍이 조금만 불어와도 이내 꽃망울을 터뜨리는 가냘픈 꽃이다. 살랑이는 바람만 불어도 연약한 가지와 연분홍 꽃잎이 마구 흔들려 그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

정원에서 산책하던 태양이 여자만 너머 고층반도로 가라앉으면 광암만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와 광양제철소의 불빛으로 인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진례봉 아래의 도솔암을 거쳐 수백개의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 영취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재 군락지가 반긴다. 봉우재 남쪽의 암봉은 다른 진달래 군락지와 달리 뾰족뾰족한 기암괴석과 연분홍 진달래가 만들어내는 또렷한 색조가 눈을 황홀하게 한다.

동백처럼 황홀하지도 않고 매화처럼 고고하지도 않지만 유난히 시인들의 영감을 자극해온 진달래. 꽃송이 하나하나의 순박하기 그지없는 시골처녀의 수줍은 모습이지만 무리지어 분홍빛 속살을 드러낼 땐 성숙한 여인의 자태로 다가오는 영취산 진달래. 그리움의 화신인 진달래가 오늘도 영취산 정상에서 그리움의 바다를 향해 꽃 같은 미소를 흘리고 있다.

오는 4월 13일까지 영취산 일원에서 '제 15회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 산신제와 진달래 아가씨 선반대회, 사물관 궁중연등 다양한 볼거리와 굿관이 열려 상춘객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한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Daegu, Gwangju, and Jeonnam. Each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property details, and prices.